

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November No.106

NH-Amundi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본부

작성기준일 : 2025년 10월 31일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1115호]

(2025.11.06~2026.11.05)

 NH-Amundi자산운용

시장전망

· CIO 칼럼	03
· 국내 주식 시장 전망	04
· 국내 채권 시장 전망	05
· 해외 주식 시장 전망	06
· 해외 채권 시장 전망	07

CIO 칼럼

시장을 움직이는 입

올해 4월 미국의 관세부와 발표로 큰 폭의 조정을 겪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10월 동안 주식, 채권, 부동산, 금과 은 등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하는 'Everything rally'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Everything rally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는 풍부한 유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금리 기조였습니다. 이번 사이클 역시 미국은 물론 EU, 중국, 일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및 동결)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동시 다발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는 지정학적 요소, 특히 미국을 위시한 주요 지도자들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투자결정의 근간인 매크로 분석과 밸류에이션 중심의 모델에서 지정학적 변수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수반의 코멘트(입)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결정 모델에서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정량화가 어려운 새로운 변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국가 안보,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 관계, 에너지 공급망, 특정국가에 대한 금융시스템 배제 등 이전에는 금융시장에서 비경제적, 외부적 요인으로 여기던 변수들이 투자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70여년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세계화(Globalization)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에 놓였습니다. 무역, 노동, 자본의 세계화 흐름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고 미국, EU, 중국 중심의 경제블록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가 누렸던 세계화의 시너지를 제거하면 경제를 록별 실질 금리, 국가 부채, 환율 및 자본시장 밸류에이션은 크게 변동될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AI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혁신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선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미 미-중-EU 경제블록간 기술 전쟁은 경제적 이해 관계를 떠나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앞다투어 기술 혁신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혁신은 5G로 대표되는 광대역통신과 에너지 자립도 등 국가 수준의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산업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AI의 머신러닝 속도 경쟁, 양자컴퓨팅 개발 등 이번 기술혁신 사이클에서는 정부주도의 공공부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정학적 이해관계 역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미국, EU, 중국은 전세계 경제의 26%, 17%, 16%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무역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세계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은 전세계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가장 높습니다. EU 역시 전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며 EU내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기준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최근 미국, EU, 중국 모두 자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연결하는 개입주의 정책을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으로 대표되는 국가별경제분석 모델만으로 앞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경제블록 간 지정학적 연계와 안보 네트워크 등 새로운 변수를 전통적 금융시장 모델과 결합해야만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역시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진희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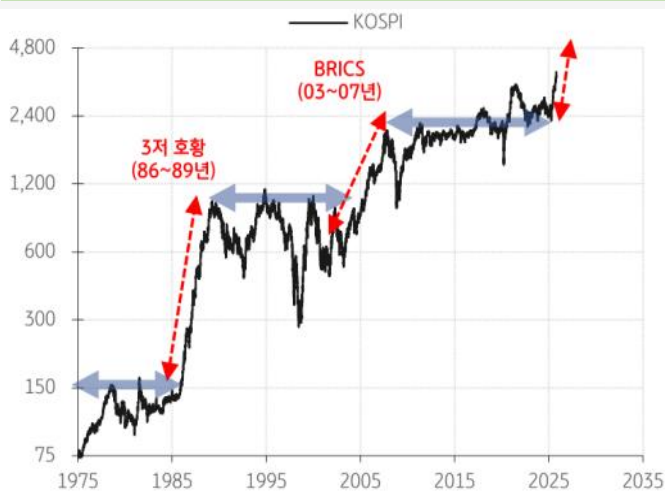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전망

10월 KOSPI는 '4,000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전인미답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10월 27일 기준) 미-중간의 관세 휴전 시한 (11/1)을 앞두고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증시는 변동성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30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확인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초 이후 1) 미국 중고차 금융사 트라이 컬러 홀딩스 파산, 2) 자동차 부품사 퍼스트 브랜즈 파산 보호 신청, 3) 웨스턴 얼라이언스뱅크 등의 부실대출과 같은 이벤트로 인해 신용관련 우려가 부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국지적인 이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주가 초 강세를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이 상승한 반면 음식료, 방산, 화장품, 유통 등이 부진했습니다.

KOSPI는 과거 두 차례의 긴 횡보 기간을 끝내고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였으며, 최근 세 번째 횡보장을 마친 지금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주주환원 강화 정책과 실적 전망치 상향에 힘입어 우상향 기조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등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차 상법 개정 및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추가적인 세법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정책 기대감이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KOSPI 추이, 3번의 횡보장과 2번의 상승장



* 출처 : KB증권

추천 펀드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세계정세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서 향후 급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산업예시



인공지능 인프라



원자력



방위산업



조선



신재생 에너지



ESS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에서 투자 기회 포착

주주가치 제고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중복 상장에 따른 저평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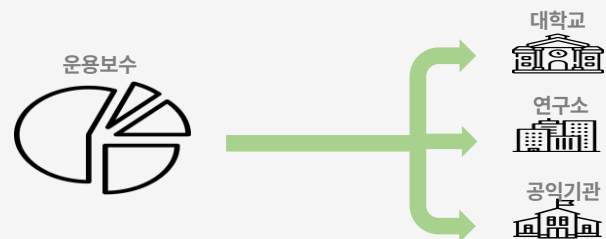
배당 분리과세에 따른 수혜 기대



주주친화적 기업의 재평가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운용보수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C	C-P1	C-P2
선취수수료	1% 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62%	1.00%	0.70%	0.68%
운용보수	0.9%			
기타보수	수탁 0.02%, 사무관리 0.01%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채권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10월 국고채 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월 초반에는 미국 정부 섣달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국고채 금리도 이에 연동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후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며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10월 동결 이후에는 연내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며 국고채 금리는 재차 상승했습니다.(10/28일 기준 국고 5Y 전월말 대비 +2.2bp)

금통위에서는 여전히 인하 소수의견을 낸 위원이 있었지만, 3개월 이내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 수가 8월 5명에서 10월 4명으로 줄어들면서 시장의 연내 인하 기대감을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10.15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11월 금통위 이전에 집값이 안정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연내 동결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차츰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 및 고용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연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하하고 양적긴축(QT)도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장의 기대가 연내 동결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 주택 가격 안정과 한-미 무역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내 동결 시에도 '26년 상반기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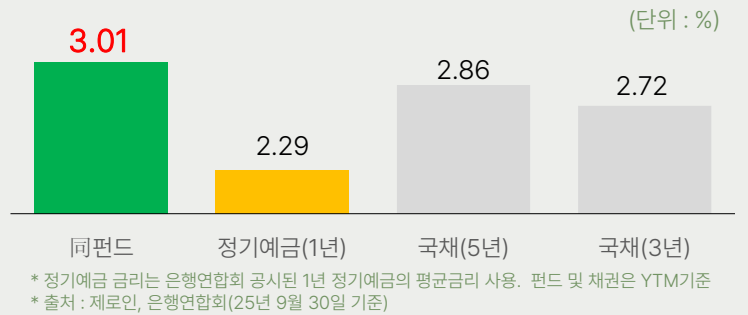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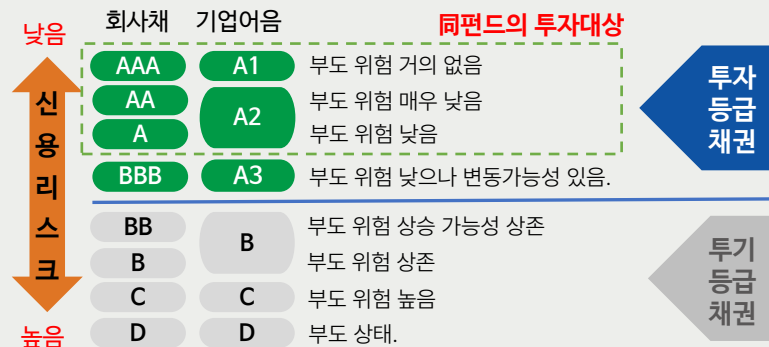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2.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3.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펀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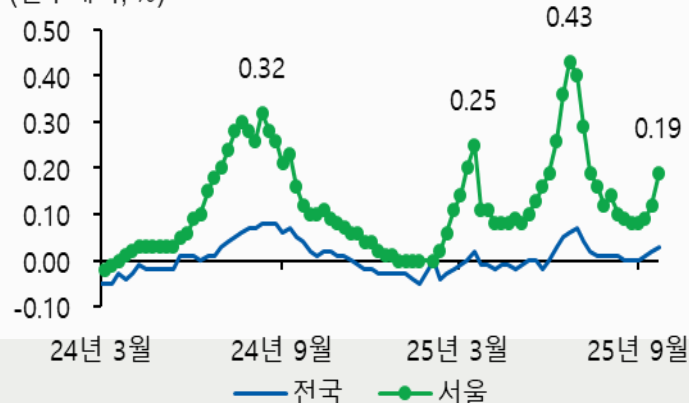
펀드 유형	증권형(채권),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2	C	C-P1	C-P2
선취수수료	0.3%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05%	0.30%	0.19%	0.18%
운용보수	0.075%			
기타보수	수탁 0.01%, 사무관리 0.01%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전주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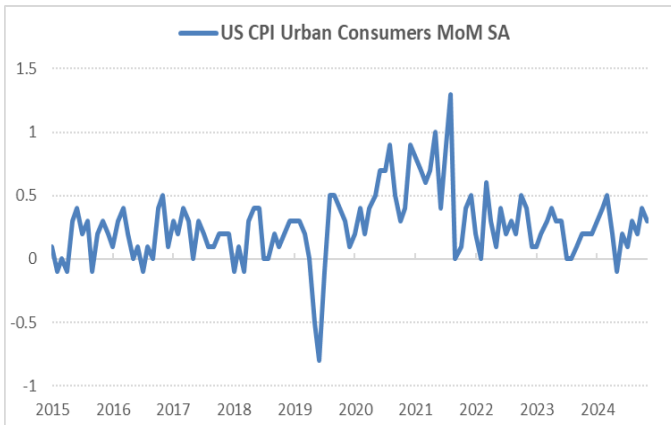
해외주식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10월 글로벌 증시는 미국 정부 섯다운과 미/중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월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은 반도체를 무기로 각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립하였으며, 100% 관세와 회담 취소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월 초 AI 투자 붐에 힘입어 과열되었던 증시는 단기 급락하였습니다. 사모금융과 관련한 지역 은행의 손실, AI 순환투자와 관련한 일부의 우려, 정부 섯다운으로 인한 경제 데이터 발표 지연 등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화적으로 바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고용 시장 둔화를 의식하여 추가 금리 인하와 양적긴축 종료를 언급한 파월 금융의장의 멘트, 둔화된 9월 소비자물가와 견조한 기업 실적 등에 힘입어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10월말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미/중 정상회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10월 FOMC, AI에 대한 대규모의 설비투자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된 가운데, 시장은 미/중 무역 합의와 더불어 긍정적인 기업 실적,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AI 투자 사이클, 경기침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금리 인하,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업종의 탄탄한 실적은 미국 증시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의 전월대비 상승세 둔화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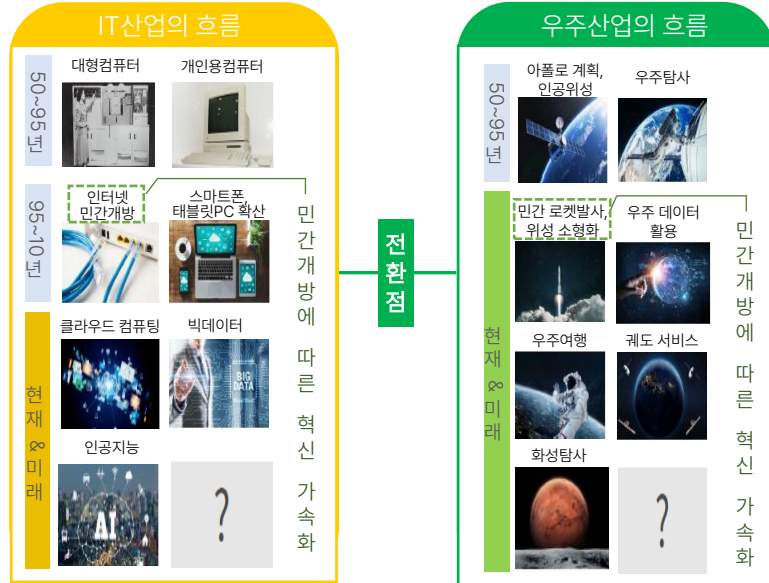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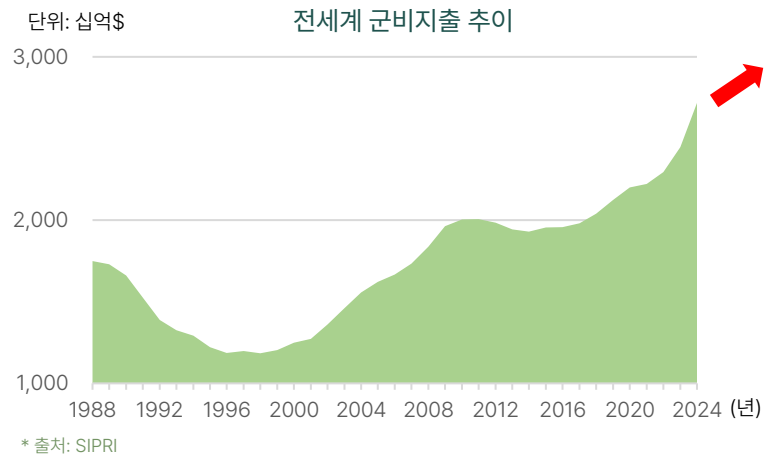
1 2 **3** 4 5 6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민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1.0%이내	0.5%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70%	0.35%	0.85%	0.80%
운용보수	0.80%			
기타보수	수탁 0.06%, 사무관리 0.02%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채권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10월 글로벌 채권 시장은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민간 고용 지표 부진 영향으로 금리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9월 중순 미국의 기준금리 -25bp 인하 및 10월과 12월 2번의 금리인하 시그널이 채권 시장 강세에 영향을 미쳤으며, 10월 초에 발표된 9월 미 민간 고용지표도 부진하며 금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정부 섯다운으로 인해 물가지표 발표는 지연되어 인플레이 우려가 다소 진정된 점도 채권 시장에 좋았습니다. 월 중순을 넘기며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이슈가 생기며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생기며 금리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 10년물 -15bp, 독 10년물 -13bp)

11월 글로벌 채권 시장은 금리가 상승하며 마감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월말 Fed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 분명하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Fed 내에서도 의견이 반반 정도여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연된 인플레이션 지표는 결국 관세를 반영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미국채 10년물은 4% 이하이나, 다시 4%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금리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달 추천해드릴 상품은 글로벌 하이브리드 채권입니다. 금리가 상승 할 때는 금융 쪽이 좋은데, 해당 펀드는 금융비중이 매우 높아 개별 기업 펀더멘털이 안정적이며, 높은 캐리 수익이 예상됩니다.

미국 10년물 VS 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추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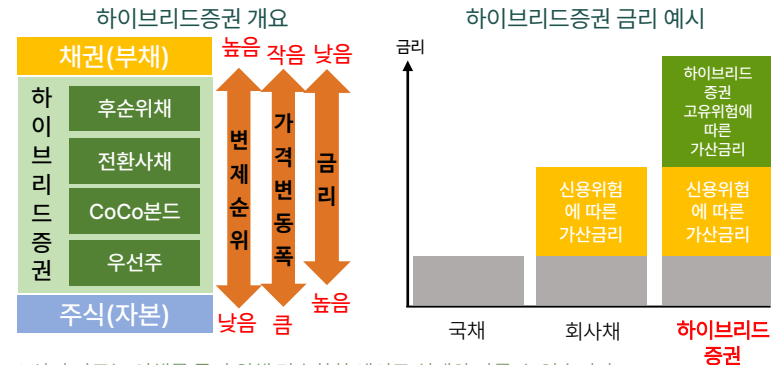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자투자신탁(H/UH)[채혼-재간접형]

1 2 3 **4** 5 6

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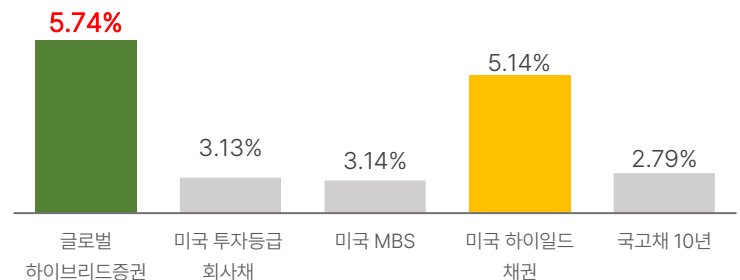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타 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2025년 7월 31일 기준. 해외채권 YTM은 환헷지 후(유로/원 +0.15% 달러/원 -2.28%) 수치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블룸버그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 기관 예시

프랑스 전력공사	도이치방크
정부 소유의 프랑스 최대 전력 회사	독일 최대의 글로벌 은행
신용등급 : BBB+(S&P)	신용등급 : A(S&P)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0.8%이내	0.4%이내	-	-
할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50%	0.25%	0.45%	0.42%
운용보수	0.40%			
기타보수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는 최신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본 자료 제공 이후 또는 이전에 발생한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표시한 제반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받은 경우 절대로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규약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수령하여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가 지금 현재 시점의 시장상황, 전망 등을 고려하여 귀사의 내부 참고용으로만 제작한 것이므로, 귀사는 본 자료를 투자자에게 배포하거나, 본 자료의 내용을 발췌·인용하거나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상품 취득의 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 자산투자 시)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운용현황, 시장전망 등은 참고자료로서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